

## 번역에서 배운 우리말의 소중함

---

이한우

조선일보 논설위원

1985년 처음 번역서를 냈으니 벌써 17년째 번역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낸 번역서가 20권쯤 된다.

사람들은 종종 필자에게 묻는다. 신문기자가 뭐하러 힘든 번역을 하냐고. 나의 답은 한 가지다. 좋아서 한다는 것이다. 돈 때문도 아니고 현학 심리 때문도 아니다.

사실 번역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번역을 하다보면 우리말 실력이 늘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말이라고 하면 순 한글만을 지칭하는데 필자는 한글전용주의자는 아니다. 그저 가능한 한 한글을 쓰되 의미와 문장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한다면 외래어를 쓰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온건한 중도라고나 할까.

사실 처음 두세 권 번역했을 때만 해도 번역 과정에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나 독일어 실력이 문제이지 우리말 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다.

번역은 일종의 해외여행이다. 우리 글에서 다른 글로의 여행이다. 그러나 단체 여행은 아니고 지도만 하나 달랑 들고나서는 여행이다. 독일에서 연수할 때 경험한 바이지만 한국에서도 길눈 어두운 사람은 외국에 나와서도 그대로

이고 길눈 밝은 사람은 외국에서도 길을 잘 찾는다. 모국어 실력만큼 외국어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일 것이다. 원서를 뒤적뒤적 아는 부분만 읽어가는 것과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서 한 권의 책을 빈틈없이 번역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번역을 하기 위해 원서를 책상 앞에 놓았을 때의 심정은 외국 공항에 내려 지도만 갖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할 때 드는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 지도를 봤을 때 찾기 쉬운 것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근처에 가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일도 있었고 반대로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연의 도움으로 너무나 쉽게 목적지를 찾아간 일도 비일비재했다.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을 번역했을 때의 일이다. (참고로 이 책은 다른 교수들이 출간했다. 필자는 혼자서 번역 중이었는데 다른 데서 나와버렸다.) 거기에 있는 Takt라는 말에서 걸렸다. 독한 사전을 보니 '박자, 소절(小節), 리듬, 예절, 예의, 배려, 분별, 조심스러움' 등으로 나와 있었다. 이중 어느 것 하나 문맥과 맞는 것이 없었다.

가다머는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이해할 때 그 작품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Takt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작품에 대해 사전에 갖추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실제로 번역을 하다보면 사전에 설명된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소절, 자질, 기예.... 아마도 2주일 가까이는 고민했던 것 같다. 그리고 문득, '조예'라는 말이 떠올랐다. '예술에 조예가 있다.' 조예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작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예술 작품의 본질에 훨씬 다가서는 말, 조예. 지도격인 사전에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지도에도 없는 멋진 장소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그와 같을 수 있을까.

번역은 혼자 떠나는 배낭여행과 참으로 닮았다. 외국에서 너무나 멋진 풍광을 접했을 때 아직은 그렇지 못한 한국을 떠올린다. 반대로 곤경을 겪거나 낙후된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을 주는 한국을 떠올리게

된다. 그럴 때는 ‘하나의 한국’이 하나의 허상임을 느낀다. 역시 ‘한국’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처음 번역을 할 때는 우리말이 영어나 독일어에 비해 너무나 덜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단순비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책들이 주로 무엇인가? 우리 것보다 훨씬 뛰어난 책들이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국내의 책들보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내용면에서도 뛰어난 것들이다. 그러나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의 모든 책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문제이지 우리말과 우리 글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 못난 것을 우리말과 글에 덮어씌우려 했으니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가?

이런 깨달음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우리말과 글을 탓하지 않는다. 혹시 모자란 것이 있다면 키워 가면 된다. 굳이 영어 문장이요, 일본어 문장이요 하며 가를 일도 아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우리의 전통 문장이 좋겠지만 사고방식이나 언어습관으로 인해 우리말로 표현이 약한 것이 있다면 주저 없이 외국 문장이나 표현을 갖다 쓸 일이다.

예를 들어 ‘에 있어’가 일본어에서 온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냥 ‘의’ 혹은 ‘에게’로 써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감은 분명히 다르다. “그에게 있어 직업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와 “그에게 직업은 인생의 전부다.”의 뉘앙스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보다 서술적인 문장이라면 둘은 같은 쪽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치밀한 심리묘사가 이뤄지고 있는 문맥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높여야 할 의도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앞의 문장이 더 적절할 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일본어 흉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장의 표현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순전히 우리 문장인 것이다.

학자건 작가건 기자건 번역자건 글을 다루는 사람은 늘 자신들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목동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말에만 빠져

있든가, 우리말은 잊고 외국어에만 빠져 있으면 그런 사명감을 갖기는 어렵다. 늘 우리말과 외국말을 왔다갔다 해야 그런 사명감이 절로 생기게 된다. 외국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 된다고 했던가?

필자가 번역을 해오면서 넘어선 콤플렉스가 하나 있다. 초창기에는 번역을 하기로 결정하면 늘 출판사에서 그 책에 해당하는 일본어 번역판을 함께 구해다 주면서 “반드시 전문용어는 이 책을 참조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90년대 까지도 이런 흐름은 그대로 있었다. 실제로 영어나 독일어 원문의 구조가 잘 파악되지 않을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앞서 말했던 Takt처럼 적절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참조를 하면 쉽게 해결되기도 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두 차례 경험을 통해 일본어 번역도 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했다.

하나는 길버트 라일의 ‘마음의 개념’이라는 책을 번역할 때였고 또 하나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번역할 때였다. 일본어판 ‘마음의 개념’은 주로 개념 번역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고 ‘미디어의 이해’는 문장이 엉망이었다.

‘마음의 개념’은 여러 명이 번역했는데 최소한의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았다. 같은 disposition을 성벽(性癖), 성질, 기질 등 번역자마다 다르게 해놓았다. 심지어 번역이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기도 했다. 마치 80년대 한국 번역서들의 병폐를 한 눈에 보는 듯했다. ‘미디어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그 책의 번득이는 통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한 듯했다. 오역 투성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일본서 공부하고 온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요즘 일본도 아무나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학문 수준의 저하라고나 할까. 거기에 비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번역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놀라운 수준이다.

세계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쉽게 번역을 한다는 것이다. 이걸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외국어 실력이 낫다보니 영어나 독일어를 떠맡을 듯이 했다. 그것은 우리말에 대한 자기비하로 이어졌다. 번역하는 본인의 실력이

낮다는 생각은 앓고 역시 우리말과 글을 탓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번역을 보면 번역 투의 문장이 별로 없다. 마치 우리 글로 쓴 책을 읽는 것 같다. 그건 말과 글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 내용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말과 글에 대한 자부심 또한 회복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말에 대한 비하의식은 남아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알몸 나체 누드의 3단계 의미론이다. 이건 순전히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맥락에서 생긴다. 알몸은 주로 신문의 사회면 기사에서 사용된다. “알몸으로 발견됐다.” ‘알’의 뉘앙스는 대단히 중요하다. 진짜배기, 알갱이, 핵심 등을 나타낸다. 그런데도 알몸은 3등단어로 전락했다. 한자어가 대부분 그러하듯 나체(裸體)는 우리 의식에서 2등 단어다. 최소한 비하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누드는 예술과 관계하는 고상한 단어이다. 이런 3단계는 ‘밥집’, ‘식당’, ‘레스토랑’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최근 은행합병에 따른 이름바꾸기이다. 대부분 한자어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KB같은 영어 이름이나 하나, 우리같은 순 우리 이름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한글학회에서는 영어 이름 쓴다고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지만 필자가 볼 때는 ‘하나, 우리’ 같은 은행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것일 테니까.

끝으로 번역이 가르쳐준 우리말에 대한 새로운 생각 한 가지는 일상어의 중요성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리 수준 높은 번역서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상어 수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어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한동안 ‘착종(錯綜)’이니 ‘전유(專有)’니 하는 말을 마르크스주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일상대화에서도 즐겨 사용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각각을 뒤엎힘, 내 것으로 만듦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존중해마지 않는 민중들도 몰랐을 리 없을 것 아닌가.

요즘 듣기 싫은 말 중에 ‘도저(到底)하다’는게 있다. 주로 문학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깊이 있는 문학’하면 되지 ‘도저한 문학’이라고 하면 뭐가 다른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내용이 없는 사람일수록 형식에 얽매이고 속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걸을 과하게 꾸미는 것 같다. 난 ‘도저한 문학’ 운운하는 광고 문안을 볼 때마다 ‘아, 요즘 한국문학이 별 볼일 없구나’ 생각한다. 한국 문학이 별 볼일 없다면 우리말과 글에도 도움될 일이 없을 텐데.